

SARS, “아시아 경제 초토화 직전”

KOTRA, 경제성장 전망치 하향조정 잇따라 ... 국내기업 수출차질 비상

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 사스(SARS)가 세계경제를 급속도로 전염시키고 있다.

KOTRA에 따르면, 미국 모건 스탠리는 미국-이라크 전쟁과 SARS 충격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종전 2.5%에서 2.4%로 0.1%p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, 아시아의 경제성장 전망도 5.1%에서 4.5%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.

WTO 역시 2003년 세계무역 증가율이 2003년 초 5% 증가에서 3% 미만 증가로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.

Far Eastern Economic Review는 지금까지 사스로 인한 아시아권 국가의 경제적 손실이 106억달러 수준이며, 장기화되면 손실규모가 500억달러에 달해 아시아권 GDP의 0.8%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.

SARS는 항공운수, 관광·서비스업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데, 싱가포르 정부는 관광업 및 항공업 등에 대해 재산세, 유류세 할인 등 간접적인 형태로 총 2억3000만S달러를 지원키로 했으며, 말레이시아 정부는 SARS 피해 산업구제를 위해 별도의 펀드 조성하고 기존의 금지 펀드를 허용하거나 세금 감면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마련중에 있다.

4월15일부터 20일까지 중국 광둥성에서 열린 Canton Fair 제1기에서는 SARS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바이어 방문이 2002년의 10분의 1 수준인 1만6433명에 그쳤으며, 수출계약액도 33억1200만달러에 불과해 2002년 1기와 2기 합계 169억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.

중국을 바이어 및 관광객 급감과 SARS 발병환자 통계조작 사실로 인한 신뢰도 저하로 앞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, 노동절 연휴 축소로 소비수요도 위축도 전망되고 있다.

SARS 확산 추세

(단위: 명, %)

구 분	2003.4.5		2002.4.24		증가율(발병기준)
	발 병	사 망	발 병	사 망	
중 국	1,220	49	2,422	110	98
홍 콩	800	20	1,488	109	56
싱 가폴	101	6	192	19	90
타이완	17	0	37	0	117
캐나다	74	7	140	15	89
베트남	59	4	63	5	6
미 국	-	-	37	0	-
세계 전체	2,416	89	4,439	263	83

† WTO 통계 기준

KOTRA는 현재 SARS 확산이 수출 마케팅 활동에는 우려할만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, 중국 투자진출기업 일부에 단기 조업중단을 검토하는 등 생산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초래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다.

또 SARS가 장기화되면 마케팅 활동의 위축이 심각해지고, 중국 등 SARS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수요 위축과 수입수요 감소가 예상돼 국내 수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SARS 확산지역인 중국, 홍콩, 타이완, 싱가포르에 대한 국내수출은 2002년 총 446억달러로 전체 수출실적 1625억달러의 27.4%를 차지하고 있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05/06>